

회원사 소식

버추얼텍, 인트라넷 소프트웨어 '조이데스크' 미국서 선풍적 인기

'인트라넷 그룹웨어 '조이데스크(www.Joydesk.com)'를 아시나요?' 국내에선 아직 낯선 이름이지만, 정보통신 선진국 미국에선 사용자가 1,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국산 소프트웨어 제품이다. 개발 회사는 국내 인트라넷 분야를 선도해온 버추얼텍(구 버추얼아이오시스템 대표 서지현). 조이데스크는 이 회사가 95년 개발, 출시한 한글 인트라넷 그룹웨어 '인트라웍스(www.intraworks.co.kr)'의 영어 버전이다. 단순히 한글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어권 사용자들의 입맛과 기호에 맞게 디자인부터 서비스체계까지 제품의 내용 전체를 완전히 '미국식'으로 탈바꿈시킨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4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올해 6월 첫선을 보였다. 인트라웍스의 해외판으로는 97년 일어판(intra2000)에 이어 두 번째이다..

조이데스크는 출시된 지 한 달만인 지난 7월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프리아이넷(www.freei.net)사에 팔려 외국산 제품에 대해 장벽이 높기로 소문난 미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총 20개의 독립 사이트를 운영중인 프리아이넷(freei.net)은 한 사이트에 최소 50여만명씩 총 1,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미국 ISP업계의 기린아로 떠오르고 있다. 조이데스크는 프리아이넷사의 각 사이트를 통해 전자우편과 일정관리, 게시판기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넷월드(networld.com), 피자넷(www.pizza.net) 등 미국에서만 40여개의 다른 ISP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 다양한 계층의 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벨기에(INEX) 독일(www.dialego.de), 홍콩(자동계통집단유한공사(www.asl.com.hk)) 등의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에도 보급돼 세계적인 인트라넷 소프트웨어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조이데스크의 메일기능은 미국의 ISP종합 정보제공 사이트인 'ISP.com'에서 실시한 서비스평가에서도 야후, AOL, 넷스케이프사의 메일서비스와 같은 등급인 별 4개를 획득, 우수성을 입증받기도 했다.

(주)미디어밸리, 미디어밸리(Media Valley) 출자동의(안) 통과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17일 시 본회의에서 인천시의 (주)미디어밸리(대표 김태연)에 대한 출자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지난 8월 미디어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천시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인 설립에 일정지분의 참여를 골자로 한 (주)미디어밸리 출자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12월경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주)미디어밸리의 자본금 166억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40억원을 우선 출자할 계획이다.

금번 인천시의회의 출자안 통과는 미디어밸리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사업성이 낮은 측면도 있으나 현재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조성중인 송도 신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측면과 지역경제 및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소 진통의 과정을 겪으며 이루어졌다. 아울러 시는 미디어밸리가 들어서는 송도신도시 2·4공구의 간선도로망과 연계 광역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주)미디어밸리는 금번 인천시의 출자 결정에 따라 민·관 공동이 출자한 제3섹터 법인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 제3섹터는 송도신도시 산업단지 106만평 중 1차로 63만평 부지에 대한 단지 개발, 분양, 관리, 운영권을 갖게 되며, 또한 현재 인천시와 진행중인 협의 결론에 따라 추가로 29만평을 확대해 총 92만평을 미디어밸리로

호원사 소식

조성하게 된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지식정보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미디어밸리는 인천시 송도 공유수면 매립지에 소프트웨어, 컨텐츠, 소형정보통신기기, 지원서비스 사업 등을 위주로 한 첨단지식산업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서, 궁극적으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많은 첨단기업들의 입주가 필수적인데 (주)미디어밸리의 적극적인 입주·투자 유치 활동의 결과 현재 Intel, SAP, Cisco, Festo 등 660여개 기업이 미디어밸리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미디어밸리는 금번 인천시의 출자한 통과를 계기로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로부터 투자 및 입주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후지쯔, 은행권(제1금융권) 인증거래시스템 공급

한국후지쯔(대표 : 안경수)는 은행권(제1금융권)의 인증거래시스템으로 자사의 유닉스서버 GP7000F/400 2대, GP7000F/200 4대 등 유닉스서버 6대와 보안서버, 침입탐지시스템, 디렉토리서버, 메일서버, 웹서버 솔루션 등 SW솔루션, 네트워크 장비 일체를 금융결제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시스템구축을 완료한다.

결제인증시스템은 지난 7월부터 발효된 전자서명법에 의해 전자거래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전자상거래 인프라시스템으로서, 인터넷 뱅킹, 쇼핑몰 등 모든 전자상거래에 적용되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금융결제원의 은행용 공인인증시스템은 새로운 결제인증시스템으로서 앞으로 모든 은행에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증권전사/KISA가 증권용으로 구축한 인증거래시스템은 SUN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나, 금융결제원이 은행권의 시스템을 한국후지쯔 솔루션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한국후지쯔의 대대적인 영업확대가 예상된다.

LG 텔레콤, 080수신자부담서비스 실시

LG텔레콤(대표 남 강)은 전화를 받는 수신자가 전화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080수신자부담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080착신과금서비스는 수신자 부담을 원하는 고객에게 착신 전용번호(080-19X-XXXX)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로 걸려오는 주문 예약, 업무상담 등의 전화에 대해 수신자가 요금을 대신 부담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전화를 거는 고객이 전화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상담 및 전화접수가 필요한 영업사원, 꽃배달, 이삿짐 센터, 퀵 서비스, 음식점, 콜 택시, A/S종사자 등 사무실을 자주 비우고 이동영업이 잦은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영업 기회를 보다 많이 보장해준다. 또한 080착신과금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사업영역에 맞춰 2424, 8282(이삿짐 센터, 퀵 서비스), 4989(매매업자) 등 사업성과 밀접하고 외우기 쉬운 전화번호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전화번호를 이용한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의 접촉빈도를 높여 매출증대를 꾀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A/S업무, 영업 등 업무가 동일한 경우, 최대 20명까지 복수의 가입자가 같은 080번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표번호 기능을 10월 중순경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월정액 3000원이며, 수신부담 통화

료는 표준요금(평시 : 20원, 할인 : 13원, 심야 : 12원)이 적용된다. 서비스 가입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현재 사용하는 일반 번호 외에 080서비스 번호를 별도로 부여 받으면 되며, LG텔레콤 전국 영업센터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LG텔레콤은 현재 019 가입자간에 제공하는 080서비스를 빠르면 10월 10일경부터는 유선전화 및 타이동전화 가입자로 서비스 이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LG텔레콤 고객센터(전화 : 02-3416-7000)

한솔PCS, 케이블TV 중계기 개발

케이블TV가 사용하지 않는 채널 주파수를 활용해 이동전화 통화품질을 향상시키는 중계기가 개발됐다.

한솔PCS(대표 정의진)는 PCS 주파수를 케이블TV 방송망을 통해 전송, 음영지역의 통화품질을 개선시키는 케이블TV 중계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케이블TV 중계기는 1.8GHz 대역의 PCS 주파수를 사용치 않는 TV채널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 케이블TV 방송국을 통해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한솔PCS 정보통신연구원 5명이 6개월여의 작업 끝에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한솔PCS는 기존 중계기들은 건물안 설치비용이 평균 3000만원에 달하나 케이블TV 중계기는 시설공사 없이 100만원 이하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솔PCS 정보통신연구소장 이승일 상무는 “이번 케이블TV 중계기는 PCS뿐 아니라 차세대 IMT2000 서비스에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앞으로 도심 대형건물에 집중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이콤, PC통신 · 인터넷 통합 브라우저 “천리안2000” 출시

동일한 화면에서 인터넷과 PC통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개발됐다.

데이콤(사장 곽치영)은 인터넷 네트워크(TCP/IP망) 기반에 PC통신과 인터넷을 하나로 합친 천리안 전용 브라우저 「천리안2000」을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천리안98」이 PC통신용 네트워크에 기반한 폐쇄형 브라우저였다면 이번에 출시된 천리안2000은 인터넷 망에 기반한 개방형 인터넷통신 브라우저로 PC통신과 인터넷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천리안은 자체기술로 개발한 천리안어댑터를 천리안2000에 장착함으로써 전화 접속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한편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의 모든 기술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천리안어댑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AOL 등 세계적으로 3개사만 개발에 성공한 소프트랜카드로 인터넷 전용선에서도 동작하며 별도의 인터넷 설정도 필요없다고 천리안은 설명했다.

이 제품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인 「드림플레이어」를 더욱 강화, 영화나 비디오, 음악,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포맷을 파일형태에 상관없이 「드림플레이어」 하나만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천리안2000은 천리안에서 「go CHOLCD」를 입력해 신청하거나 천리안고객센터(02-709-3700)로 연락하면 무

회원사 소식

료로 배달된다.

드림라인, 월 2만원대 인터넷 서비스

드림라인(대표 김철권)은 빠른 시일내에 월 2만원대의 「드림라인 라이트」서비스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서비스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속도별, 가격별로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해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설치가입비를 기준 요금대비 최고 33%, 월 이용료는 최고 35% 인하했다. 가정용은 최고 10M 속도의 「드림라인」과 최고 1M의 「드림라인 라이트」가 있으며 이용료는 각각 3만8000원, 2만9000원이다. 비즈니스용으로는 소호을 위한 「드림라인 소호」가 PC 3대 기본으로 월 이용료 9만9000원, PC 1대 추가시 2만원의 사용료가 더해진다. 또 기업대상의 「드림라인 멀티」는 PC 5대를 기본으로 13만원이며 PC 1대 추가시 1만~2만원대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삼성SDS, 디지털컨텐츠 EC 솔루션 공급

삼성SDS(대표 김홍기)는 최근 미국 인터트러스트사와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의 디지털컨텐츠 저작권 보호 및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터트러스트사는 MP3 파일과 같은 디지털컨텐츠의 전자상거래시 이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판매를 자동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저작권관리(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삼성SDS는 자체 개발된 보안 솔루션인 트러스트 프로(Trust Pro)와 이번에 도입된 인터트러스트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보안사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보안과 저작권 보호 및 자동결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향후 기업보안시장 및 디지털컨텐츠 판매대행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우콤, “악보공장” 서비스

나우콤(대표 강창훈)은 최근 1000여곡의 악보를 제공하는 「악보공장」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악보공장서비스는 최신가요와 드라마 삽입곡, 영화음악, 동요와 만화 주제가, 복음성가, 경음악, 가곡, 팝송 등의 악보를 제공한다.

악보공장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나우누리 화면에서 「go PIECE」를 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견당 300원.

삼성전자, 美스프린트社에 PCS단말기 5억달러 수출

삼성전자(대표 윤종용)가 미국 최대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인 스프린트사에 5억달러 어치의 PCS 단말기를 수출한다고 최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0년 한해 동안 스프린트에 이같은 물량을 공급하게 되며 연간 단위로 5억달러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단말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삼성전자는 스프린트사에 지난 97년 PCS 단말기를 첫 수출한 이래 현재까지 약 6억달러 어치를 공급해왔고 이번에 5억달러 규모를 추가로 수출키로 함에 따라 4년간 모두 11억달러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이 회사에 제공하게 됐다.

삼성전자가 스프린트사에 수출하는 단말기(모델명 SCH-3500)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와 아날로그 및 PCS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모드 제품으로 MSM-3000 칩을 내장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단말기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신 알고리듬을 탑재하고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이기태 부사장은 “이번에 스프린트사에 5억달러 규모의 단말기를 수출함으로써 삼성이 2000년 초에는 세계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에서 3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의 이번 수출로 모토롤라, 노키아, 에릭슨 등 세계 3대 업체가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전자가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퀘스트의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CDMA방식 단말기의 세계 시장 규모는 오는 2000년 4000만대, 2003년에는 8100만대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해마다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IMT2000 동기식 장비·단말기 등 업계최초 일괄 개발

삼성전자(대표 윤종용)가 업계 최초로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서비스용 동기식 기지국, 교환국 장비, 데이터단말기, 동영상휴대폰, 핵심칩 등을 일괄 개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 97년부터 자체 통신연구소,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에 나선 끝에 일련의 제품군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군 가운데 단말기에는 국내외 이동통신회사들이 소형화하지 못했던 핵심부품인 MSM(Mobile Station Modem), BBA(BaseBand Analogue Processor), RF칩 등이 적용됐다. 또 함께 개발된 IMT2000용 장비는 기존 CDMA서비스 방식인 800MHz(셀룰러 폰용), 1.8GHz(PCS용)와 미국 PCS주파수용 1.9GHz대역 및 향후 IMT2000 주파수로 결정된 2GHz대역까지 지원해 준다. 특히 삼성은 이 장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채널 모뎀카드까지 자체 개발해 향후 IMT2000 장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측은 『이번에 개발된 장비들이 동기식 CDMA2000 표준으로 개발됨에 따라 기존에 이 분야에 투자해온 CDMA사업자의 사업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번 개발에 이어 시스템-휴대폰간 연동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배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세계 IMT2000 관련기기 시장 경쟁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개발된 IMT2000시스템 단말기 등을 이달중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네바쇼에 출품해 세계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미 미국 최대 PCS사업자인 스프린트사의 IMT2000 시험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통신, 케이블TV 전송망 매각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자사의 케이블TV전송망을 사용중인 21개 케이블TV방송국(협상대표 오완교)에 전송

회원사 소식

망 시설을 매각하고 부대설비는 대여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통신은 자사가 설치 운용하던 케이블TV 전송망을 해당방송국에 일괄 매각하고 기타 부대시설은 대여키로 했으며 그 가액은 공인감정기관의 평가액을 근거로 상호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한 공인감정기관이 선임되어 평가액이 산출되는 대로 계약을 위한 세부협상을 진행키로 했으며 이르면 올해 중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통신은 진행중인 경영혁신작업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됐으며 케이블TV방송국은 자체전송망을 보유, 서비스 경쟁력을 갖게 됐다.

LG정보통신, IMT2000 단말기 첫선

LG정보통신(대표 서평원)이 안양중앙연구소에서 동영상 주고받으며 통화할 수 있는 IMT2000 단말기 모델을 최초로 선보였다.

LG정보통신이 첫선을 보인 IMT2000 단말기는 동기식, 비동기식 등 서비스방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영상휴대폰으로 384Kbps의 속도로 영상과 음성을 전송할 수 있으며 컬러LCD를 채택했다.

이 영상휴대폰은 상단에 송신자의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송신자의 음성 송수신은 이어폰에 설치된 송수신장치를 통해서 이뤄진다.

신세기통신, 김포 국제선에 국제 로밍센터 개설

신세기통신(대표 정태기)은 해외 출국자들의 이동전화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김포공항 국제선 1, 2청사에 로밍창구를 각각 설치하고 5일부터 임대형 국제로밍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이동전화를 이용코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사업자 로밍센터를 일일이 방문, 신청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공항에서 여권과 신용카드만으로 해외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대상은 출국하는 내국인과 입국 외국인 모두이며 신세기통신 017 이동전화 가입자에게는 로밍서비스 신청료(일본 2000엔, 미국 및 유럽 15달러) 전액 면제와 최대 67%의 기본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한솔PCS, 총 828km 광전송망 구축 전용선시장 진출

한솔PCS가 고속 전용선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솔PCS(대표 정의진)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총연장 828km 규모의 자체 광전송망 구축공사가 최근 전면 완료 개통됨에 따라 앞으로 초고속 무선멀티미디어와 고속 네트워크 전용선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솔PCS가 개통한 광전송망은 총 350억원이 투자돼 초당 2.5Gbps의 전송속도를 구현한 초고속 전송로로 서울과 대전, 대전-순천, 대전-부산을 잇고 있으며 통신장애 최소화와 유지보수 단순화를 가장 큰 운용상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솔PCS는 최근 개통식을 갖고 앞으로 광전송망에 기반한 이동전화서비스 품질향상과 기업대상 고속 전용선 시장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의진 사장은 개통축사에서 『광전송망을 토대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